

거래활동 기반 회계자동분개처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윤상길*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디지털정보미디어공학
e-mail : skyrobon@korea.ac.k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rading activity-based Automatic journal processing System

Gil-Sang Yoon*

*Dept. of Comput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Korean University

요 약

국내의 회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거래발생주의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기록하는 복식부기구조의 전표입력을 통한 분개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회계지식을 요구한다. 그로인해 일반 중소기업처럼 회계담당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보고서의 원천이 되는 전표발행에 있어서 거래사실만을 입력하면 복식부기의 기준에 맞게 자동분개처리 되어 전표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사용자들이 회계시스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1. 서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모든 거래활동은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재무활동은 기업의 회계처리 원칙에 준하여 정보제공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전표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시에 보고서 산출이 가능해야 한다.

회계전표업무는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회계전표작성 담당자는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경리직원과 경리조직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이중으로 회계사무소에 다시 의뢰하는 회계조직을 갖게 되어 이로 인한 인력낭비, 과다경비 지출, 불투명한 재무구조의 초래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1].

특히 회계 업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표 데이터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표준도 없으며, 관련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2].

또한 전표처리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8 요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처리 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갖추어야 전표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차변과 대변 기반의 복식부기로 개발된 회계프로그램들은 모든 거래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분개해야 하므로 상당한 정도의 분개와 관련된 전문지

식을 요구한다[3].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복식부기 기반인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발생 활동만을 입력함으로써 쉽게 자동분개처리가 되어 회계기준에 부합된 재무보고서 산출이 용이한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쉽게 전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동분개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전표처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회계기준의 정의 및 필요성과 전표처리 기능을 갖춘 회계시스템 현황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3 장에서는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계 방향과 거래유형별 자동분개처리를 위한 설계 및 구현사항을 정리하였다. 4 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에 대해 기술하고 본 연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내부 관리원가 산출을 위한 설계연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관련연구

2.1 회계기준 및 필요성

기업은 정부의 규제 또는 자발적인 결정으로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라 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기업이 임의

로 재무제표의 형식을 정해서 작성 보고한다면 회계 정보이용자의 유용성은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기업마다 측정한 결과도 다를 수 있으며 보고하는 형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보 이용자가 여러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준거해야 할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 이 지침을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이라고 한다[4].

이렇듯 기업의 경영 및 재무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성을 가지도록 회계기준에 준하여 전표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분개 전표처리 관련 시스템 현황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업 등 영리/비영리 단체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대다수가 전표처리를 위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기업은 재무보고서 산출을 위해 기업의 구매, 생산, 매출 및 내부관리에서 발생하는 거래활동을 기록하는데 그 도구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게 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시스템을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표처리를 회계시스템은 대부분 회계에 대한 지식을 일부 갖추어야 전표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화면기능이 구성되어 있으며 입력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회계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표 1).

<표 1> 상업용 시스템 별 분개처리 방법

시스템 명	분개처리 방법
이카운트	매입매출, 현금, 비현금 입력화면을 차변/대변 입력
얼마에요	매입매출전표, 일반전표등록 화면을 이용한 차변/대변 입력
sERP	매입매출등록 화면을 통한 차변/대변 입력
KSYSTEM	전표등록 화면을 이용한 차변/대변 입력을 통한 분개처리
SAP R/3	전표등록 화면을 이용한 차변/대변 입력을 통한 분개처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입매출, 현금, 비현금으로 유형을 분리하고 입력함으로써 분개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차변과 대변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통해 분개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하여금 일정수준의 회계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계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인해 거래유형에 따라 입력화면을 분리하고 거래유형별 입력사항을 일자, 거래처, 금액, 거래적요, 집행형태 등 분개를 위한 최소의 요소만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복식부기구조에 맞도록 차변과 대변의 분개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시간 장부반영을 통해 보고서 산출 가능한 시스템의 구현으로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사용자라 하더라도 쉽게 분개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업무처리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분개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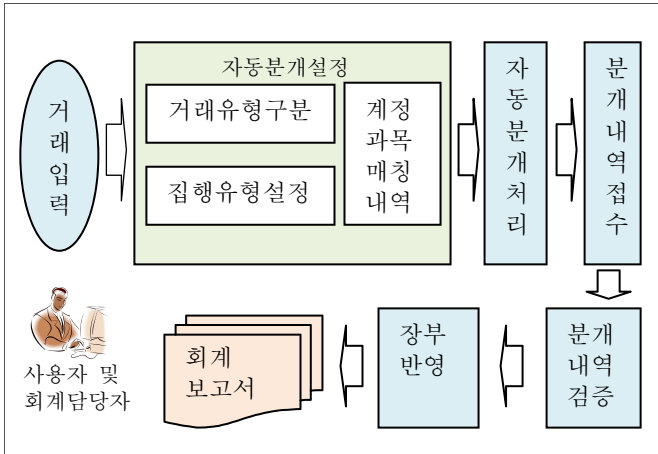
3.1 분개처리시스템의 설계 방향

분개처리시스템의 설계방향은 회계지식이 없는 사용자라도 거래내역만을 입력하면 회계기준에 맞는 자동분개처리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회계보고서 추출이 가능하도록 자동분개처리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방향은 [표 2]와 같다.

<표 2> 분개처리시스템의 설계방향

설계방향	세부방향
거래유형별 분류 및 순차적 입력에 따른 자동분개전표 처리 가능한 시스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용자를 위한 회계전문 용어 표현의 최소화 설계 ▪ 거래유형별 분류를 통한 입력의 단순화 및 거래유형 그룹핑 가능하도록 설계 ▪ 유형별 다중입력이 가능하도록 설계 ▪ 동일거래유형에 대한 순위순 입력 기능 설계 ▪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동 분개처리 기능 설계 ▪ 입금내역에 대한 자동분개 처리 기능 설계 ▪ 매입매출에 대한 자동분개 처리 기능 설계

자동분개처리를 위한 거래내역 입력 기본구조는 차변과 대변을 입력하는 복식구조의 입력방법이 아닌 입력된 거래유형과 거래유형별 자동분개설정을 토대로 계정과목을 매칭하고 거래유형과 매칭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분개내역을 자동 생성한다. 생성된 계정과목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계정별 필요관리항목별 정보를 관리한다. 이에 대한 정보처리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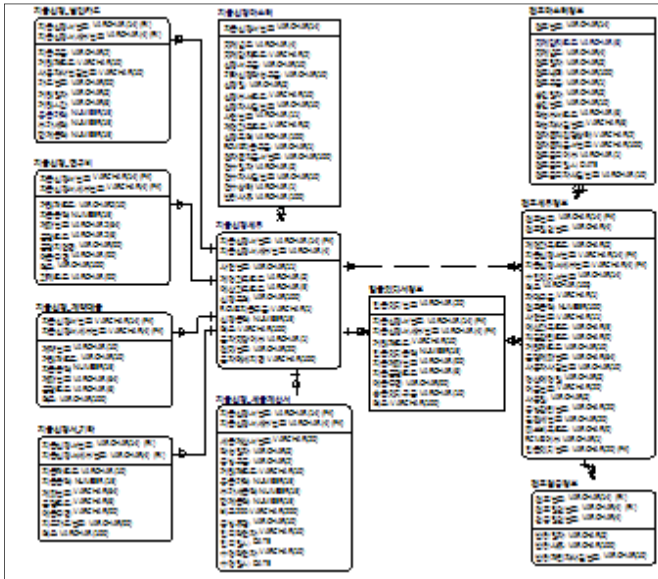


(그림 1) 거래유형별 자동분개처리 구조

(그림 3) 거래유형별 사용자입력 화면 유형

3.2 분개처리시스템의 데이터 모델

자동 분개전표처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거래유형별 입력정보, 거래유형별 통합마스터(통합신청내역), 자동분개설정내역, 입금의뢰내역, 자동분개처리전표내역, 전표검증내역, 등의 테이블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자동분개처리 데이터베이스 모델

3.3 분개처리시스템의 UI 구현

분개처리를 위해 거래유형별 사용자입력 화면 (User Interface)을 세금계산서발생내역, 법인카드내역, 연구비내역, 구매내역, 기타수당내역, 기타거래내역으로 분리하고 유형별로 필요항목을 (그림 3)과 같이 디자인하여 입력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분개처리 가능한 입력정보를 얻는다.

(그림 3)은 거래유형 중 세금계산서(매입/매출)가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입력하는 화면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조회 선택하게 되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항목 내역이 자동으로 설정되고 그 외에 필요한 사업구분, 예산과목, 거래목적 및 지급형태를 입력하여 저장하면 자동분개설정에 의해 자동으로 분개처리 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는 거래활동에서 발생한 증빙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림 4) 자동분개처리 결과 화면

(그림 4)는 거래유형별 입력화면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의 거래 8 요소 형태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자동분개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처리된 내역을 검증하여 보고서 추출을 위한 장부 반영 기능을 갖추고 있다.

4. 결론

회계프로그램은 기업의 영업, 구매, 생산 및 재무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또 기록된 정보를 회계기준에 맞는 보

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보고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그만큼 회계프로그램은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래활동 내역만을 입력함으로써 회계기준에 부합된 보고서 추출을 위한 자동분개처리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거래유형별 입력형태를 분리하여 입력화면 기능을 구성하였고, 유형별 자동분개설정을 정의하여 자동분개처리 결과를 조회 및 검증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구현된 기능은 일반사용자들에게는 거래내역만 쉽게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분개된 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거래입력정보가 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기준의 자동분개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향후 거래활동에서 발생하는 활동과 활동에 따라 분기되는 계정과목의 성격별로 원가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원가시스템과의 연계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내부 관리원가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집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황의철, 정민영, 정선태, “XML 기반 전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 18 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9 권 제 2 호, 2002.11, pp.2257~2258
- [2] 황의철, 정민영, 정선태, “XML 기반 전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 18 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9 권 제 2 호, 2002.11, p.2258
- [3] 신건권, “활동기준 이지키피평회계프로그램의 개발 논리와 회계처리 사례”, 한국전산회계학회, 전산회계연구 제 11 권 제 1 호 2013 년 6 월, p.4
- [4]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IFRS 중급회계”, 도서출판 탐진, 2009.11, p.12